

PA-66

**전북지역 땅콩 품종별 수량 및 품질특성 비교**최규환<sup>1\*</sup>, 최영민<sup>1</sup>, 허병수<sup>1</sup>, 하태정<sup>2</sup>, 권석주<sup>1</sup><sup>1</sup>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sup>2</sup>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서론]**

우리나라에서 땅콩 재배면적은 2018년 현재 4,118ha로 꾸준히 생산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땅콩은 항암, 항산화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이 검증된 천연 폴리페놀계 화합물인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유지원료 작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식품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땅콩은 새싹으로 길러서 이를 가공하여 다양한 식품으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땅콩 품종별 수량과 품질의 특성을 비교하여 새싹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2018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신팔광땅콩, 다안땅콩, 흑생땅콩, 케이올땅콩, 세원땅콩 5품종이었고, 시험포장은 pH가 7.4, EC와 유기물함량이 각각  $0.75\text{dS}\cdot\text{m}^{-1}$ ,  $19.2\text{g}\cdot\text{kg}^{-1}$ 인 양토의 발토양에 재식간격  $50\times 20\text{cm}$ 의 보통기재배하여 지상부 생육 및 수량특성 등을 비교하였다. 모든 조사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2013)에 준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개화기는 신팔광땅콩이 6월 7일로 가장 빨랐고, 다안땅콩과 케이올땅콩이 6월 10일로 늦었다. 주경장은 흑생땅콩이 41.7cm로 유의하게 가장 길었고, 도복발생이 가장 많았다. 신팔광땅콩의 주경장은 29.9cm로 유의하게 가장 짧아 도복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분지장은 모든 품종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당 성숙협수는 다안땅콩이 72개로 가장 많았고, 세원땅콩이 41개로 가장 적었다. 성숙협비율과 협실비율은 품종간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100립중은 다안땅콩이 100.8g으로 가장 무거웠고, 흑생땅콩이 61.5g으로 가장 가벼웠다. 종실수량은 세원땅콩이 444kg/10a로 가장 많았고, 신팔광땅콩이 354kg/10a, 케이올, 다안, 흑생이 각각 298kg/10a, 293kg/10a, 289kg/10a의 순이었다. 품종별 주요 영양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은 다안땅콩이 가장 많았고, 지방은 케이올, 탄수화물은 신팔광땅콩이 많았다. 품종별 발아특성은 치상 5일 후에는 모든 품종에서 90%이상의 발아율을 보였지만, 초기 발아세는 다안과 케이올이 낮았고, 흑생, 신팔광, 세원땅콩은 높았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사업번호: PJ013378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82-63-209-6031, E-mail. ckhann@korea.kr